

현안과 과제

양날의 칼(double-edged sword), 중국 경제
- 중국 성장률 1%p 하락시 한국 성장률 0.4%p 하락

Executive Summary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 ▶ 중국 경제, 수출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 지표 악화
 - 중국 소비와 투자는 상대적 호조 지속
 - 중국의 '12년 1월 수출 0.5% 감소, 수입 15.3% 감소
- ▶ 2012년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
 - IMF는 중국 경제성장률 '11년 9.2% → '12년 8.2%로 1%p 하락 전망

대중국 수출 경로를 통한 저성장 전이 우려

- ▶ 수출 경로를 통해 한국 경제에 악영향 우려(이미 대중국 수출 침체 시작)
 - 한국의 '12년 1월 대중국 수출 7.0% 감소 (관세청 확정치 기준, 2/15)
- ▶ 한국 경제의 높은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차이나 리스크를 증폭
 - 한국 대중국수출/총수출 비중은 '00년 10.7%에서 '11년 24.1%로 급증
 - 중국수출/총수출 비중('10년): 한국 25.1%로 대만에 이어 2위
 - 대중국수출/GDP 비율('10년): 한국 11.5%로 대만에 이어 2위
 - ※ 중국의 주요 수입대상 상위 10개국 기준

중국의 성장 둔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 중국 경제성장률 1%p ↓
 - 한국 총수출증가율 1.7%p ↓ → 한국 경제성장률 0.4%p ↓
- ▶ 국내 화학, 기계, IT(반도체, FDP) 등이 가장 심각한 타격
 - ※ 품목별 대중국 수출비중('11년): FDP(66%), 반도체(31%), 화학(47%), 기계(29%)

시 사 점

첫째,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 강화
둘째,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신흥 시장의 발굴 및 진출 주력
셋째,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도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마련

1.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¹⁾

- 최근 중국 경제가 수출 부문을 중심으로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대내외 기관들은 2012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 경제의 불안) 최근 중국이 수출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상황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 한국의 수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증대
 - (경제성장률 하락) 2011년중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하락세를 지속하여 4/4분기 8%대를 기록
 -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2011년 1분기 9.7%를 정점으로 2분기 9.5%, 3분기 9.1%에 이어 4분기 8.9%를 기록함
 - (내수 경기 유지) 소비와 투자의 내수 부문은 크게 둔화되지 않는 모습
 - (소비) 중국의 소비 경기를 보여주는 소매판매 증가율은 2011년 12월 약 18%대로 연초보다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임
 - (투자) 고정자산투자 역시 20%대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어 투자 부문도 상대적인 호조를 지속중임
 - (수출 경기 침체) 1월 중국의 수출 경기는 계절적 요인의 영향과 세계 경제 불황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급격하게 침체되는 모습
 - 중국의 2012년 1월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0.5%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15.3%의 감소세를 기록함
 - 중국의 1월 수출이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춘절(春節)의 계절적 요인에 따른 逆 기저효과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 단,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2011년 10월 약 29%를 정점으로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1월 수출 감소가 계절적 요인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불안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1) 중국 경제 상황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확대와 대응 과제」 (2012. 1. 27) 참조.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전년동기대비, %)>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경제성장률	10.4	9.2	9.7	9.5	9.1	8.9	-	-	-	-	
소매판매	18.4	17.1	16.3	17.2	17.3	17.5	17.2	17.3	18.1	-	
고정투자	24.5	23.8	25.0	25.6	24.9	23.8	24.9	24.5	23.8	-	
수 출	32.3	20.7	26.4	22.1	20.6	14.3	15.9	13.8	13.4	-0.5	
수 입	41.6	25.3	32.8	23.1	25.0	20.6	28.7	22.1	11.8	-15.3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주: 고정투자는 도시지역 누계 기준.

○ (중국 경제성장률 추가 둔화 전망) 올해 중국 경제 성장은 2011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주요 해외 기관들은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중국의 수출 환경이 악화되면서 201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2011년 9.2%보다 둔화된 8%대로 예상

· 특히, IMF는 중국의 2012년 경제성장률이 2011년의 9.2%보다 1%p가 하락한 8.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일부에서는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될 경우 경제성장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도 제기

· 일부 미국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증진국합정에 빠질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국가채무 디폴트에 직면, 경제성장률이 7%를 밑돌 것으로 전망

· 중국 정부 역시 올해 성장 목표치를 7~8%대로 낮추고 있어, 세계 경제 회복세가 지연될 경우 성장률이 7%대로 급락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

<IMF의 주요 지역 및 국가의 경제성장률 전망(%)>

	2010	2011	2012(E)		
			'11.6월 전망	'11.9월 전망	'12.1월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	5.2	3.8	4.5	4.0	3.3
선진국	3.2	1.6	2.6	1.9	1.2
미 국	3.0	1.8	2.7	1.8	1.8
유로지역	1.9	1.6	1.7	1.1	△0.5
일 본	4.4	△0.9	2.9	2.3	1.7
개발도상국	7.3	6.2	6.4	6.1	5.4
중 국	10.4	9.2	9.5	9.0	8.2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주: 타 기관 2012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 - OECD 8.5%, World Bank 8.4%, ADB 8.8%.

2. 대중국 수출 경로를 통한 저성장 전이 우려

-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 경기 하강으로 이어지고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귀결

- (한국 경제의 높은 대중국 의존도의 양면) 한국의 경제 성장이 중국 경제의 고성장에 수혜를 입은 바가 크나, 중국 경제 상황 악화시 한국의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반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중국 고성장의 수혜) 2000년대 이후 한국 경제 성장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빠르게 높여 중국의 고성장에 의존한 정도가 컸던 것이 사실
 - 특히 수출에 있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한국의 대중국수출/총수출 비중은 2000년 10.7%에서 2011년 24.1%로 급증함

 - (양날의 검, 중국 경제) 그러나 지금은 역으로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는 중국 경제 상황 악화시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협할 수 있는 '양날의 검(double-edged sword)'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 한국의 대중국 수출 경기 급락
 - (한국의 대상국별 수출 경기) 2012년 1월중 한국의 총수출이 감소한 주된 원인은 EU 지역으로의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나 대중국 수출 감소도 일정 부분 기여
 - 2012년 1월중 한국의 총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전년동월대비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국가별 수출 증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1월중 한국 수출 감소에 EU 지역으로의 수출 감소가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함(약 70%대의 기여)
 - 한편 한국 대 중국 수출 증가율이 2011년 11월과 12월 5%대로 낮아진 이후 1월에 -2.3%의 감소세로 전환되어 1월중 총수출에 감소에 일정 부분 원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한국의 대 중국 수출 경로를 통해 이미 '차이나 리스크'가 가지화 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됨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한 수출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총 수출	28.3	19.0	29.6	18.6	21.4	9.0	7.6	11.5	8.2	-7.0	
중 국	34.8	14.8	17.2	14.3	20.2	8.5	14.4	5.7	5.6	-2.3	
미 국	32.3	12.8	19.6	17.5	8.1	7.6	-3.6	21.4	5.7	-0.3	
E U	14.8	4.2	34.7	2.5	0.7	-15.7	-20.3	-5.1	-19.9	-37.9	
일 본	29.4	40.8	49.5	47.1	40.8	29.3	23.4	25.3	39.2	13.9	
ASEAN	29.8	35.2	39.5	32.1	45.9	24.5	19.0	24.3	30.3	7.9	

자료: 한국무역협회, 관세청(1월 수출입 확정치 기준).

주: 2011년 현재 표의 수출대상 5개 지역의 수출비중은 64.3%.

- (한국의 대중국 품목별 수출 경기) 한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들 대부분이 1월중 큰 폭의 수출 감소세를 기록

- 특히, 철강, 기계, 자동차, 가전, 무선통신기기 등이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기록함
- 한편 화학, 반도체, FDP 등의 품목은 증가세는 유지하고 있으나 미약한 수준에 그침

<한국의 주요 대중국 수출품목별 수출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2010	2011									2012
	연간	연간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화 학	20.7	26.5	16.6	23.1	46.5	21.5	32.6	13.3	19.7	8.6	
철 강	2.3	12.0	13.7	7.5	29.3	0.8	6.8	0.6	-4.8	-14.7	
기 계	65.1	16.2	54.2	13.3	13.6	-6.1	-4.4	5.2	-16.1	-27.1	
자 동 차	78.5	48.0	58.9	25.6	75.9	39.7	49.4	52.5	15.5	-27.4	
가 전	14.4	11.0	23.6	3.9	12.2	4.1	-4.2	10.9	5.4	-31.7	
무선통신기기	-23.8	-9.5	-33.5	-11.4	27.0	-13.5	-6.0	-15.6	-19.3	-28.8	
컴 퓨 터	0.7	11.6	-2.4	-4.8	18.8	35.3	32.3	41.6	32.3	-3.1	
반 도 체	87.0	-8.2	-2.0	-14.1	-10.7	-4.6	-15.8	-5.2	9.3	2.3	
F D P	40.3	9.4	11.9	15.7	2.6	8.4	15.0	2.9	7.2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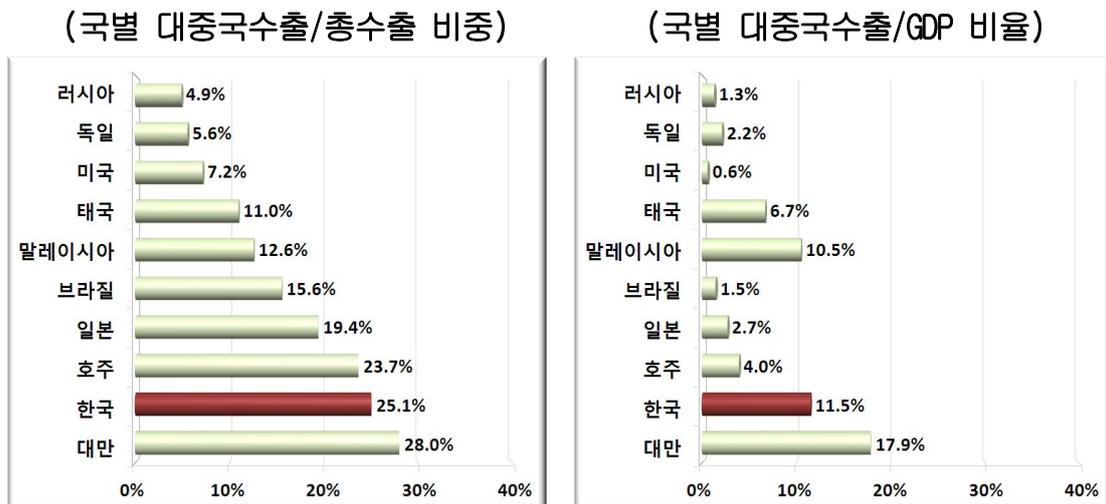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관세청(1월 수출입 확정치 기준).

주: MTI코드 기준 화학(21), 철강(61), 기계(71, 72, 73), 자동차(741), 가전(82), 무선통신기기(812), 컴퓨터(813), 반도체(831), FDP(8361).

○ 한국 경제의 높은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차이나 리스크를 증폭

- (대중국수출/총수출 비중) 2010년 중국의 주요 수입대상 10개국중 한국의 대중국수출/총수출 비중은 25.1%로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2010년 기준 중국의 주요 수입대상국중 각 국가의 총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8.0%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한국의 경우에도 대중국수출/총수출 비중이 25.1%로 중국의 상위 10대 수입국중 대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출의존도를 보임
- (대중국수출/GDP 비율²⁾) 2010년 중국의 주요 수입대상 10개국중 한국의 대중국수출/GDP 비율은 11.5%로 역시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이를 감안하여 국가별 대중국수출/GDP 비율을 계산해 본 결과 한국은 11.5%로 역시 대만(17.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일본, 호주의 경우 대중국수출/총수출 비율은 높으나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낮아 대중국 수출이 부진하여도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주요국별 대중국 수출의존도(2010년)>



자료: UN COMTRADE, IMF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중국의 입장에서 상위 10대 수입국(사우디아라비아 제외)을 대상으로 함. 2010년 기준 중국의 이들 10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9%임.

2) 국가별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아도 수출이 경제 규모(경제의 수출의존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면 대중국 수출이 부진하여도 큰 문제를 발생할 소지가 없음.

3. 중국의 성장 둔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할 경우 한국의 총수출증가율은 1.7%p 하락 압력을 받게 되고 이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0.4%p 하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짐. 한편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별로는 화학, 기계, IT(반도체, FDP) 등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

○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한국의 총수출과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 중국 경제성장률과 한국의 수출증가율 사이의 관계에 기초한 회귀분석에 의하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할 경우 한국의 총수출증가율은 1.7%p 하락 압력을 받는 것으로 분석

· 한국 총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중국 경제성장률, 실질실효환율, 국제유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분석함

- 한국의 총수출 증가율이 1.7%p의 하락 압력을 받게 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은 0.4%p 하락할 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

· 중국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여 한국의 총수출증가율이 하락 압력을 받는 것은 GDP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 동시에 수출의 수입유발효과 때문에 수입증가율도 하락 압력을 받게되어 수입은 GDP 증가 요인으로 작용됨

· 이에 수출 부문의 외화가득률 약 52%를 고려할 경우 중국 경제성장률 1%p 하락은 한국 경제성장률에 0.4%p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주요 산업별 수출 경기에 미치는 영향

- 국내 주요 수출 산업중 대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화학, IT, 기계 등임

· 2011년 기준 화학 제품의 대중국수출/총수출 비중은 47%에 달하고 있으

며, 다음으로는 IT(36%), 기계(29%)의 순서임

- 반면, 철강(대중국수출/총수출 비중, 13%), 가전(13%), 자동차*(5%), 선박(0%) 등은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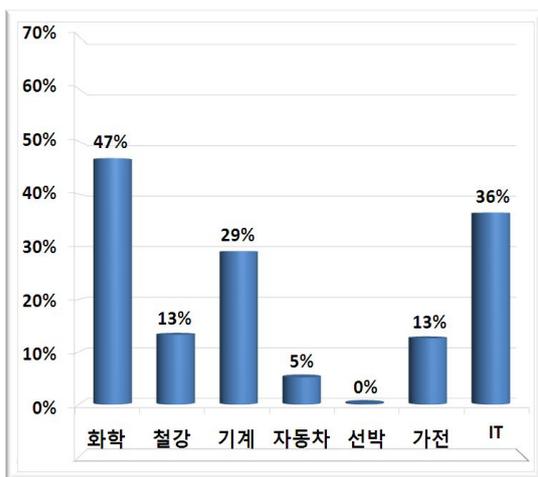
※ 단, 자동차 부분의 경우 중국 현지 진출 법인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이 보다 클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화학, IT, 기계 수출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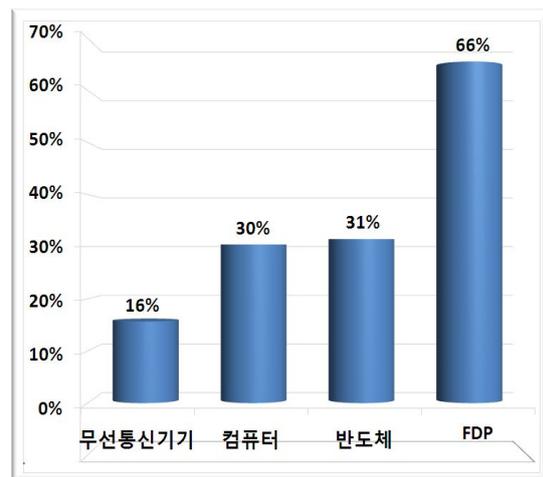
- 특히, IT 세부 업종 내에서도 LCD, PDP 등과 같은 FDP(평판디스플레이)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다음으로 반도체, 컴퓨터 등도 중국 경제 부진에 따른 수출 둔화 현상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무선통신기기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16%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수출 경기 부진세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의 대중국수출/품목총수출 비중(2011년)>

(주요 품목)



(IT 세부 품목)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1) MTI코드 기준 화학(21), 철강(61), 기계(71, 72, 73), 자동차(741), 선박(7461), 가전(82), IT(812, 813, 831, 8361)

2) FDP(Flat Display Panel)는 LCD, PDP 등과 같은 평판디스플레이를 말함.

4. 시사점

첫째,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해야 한다.

- 한·중 수교 20주년, 한·중 FTA의 정부간 협의 본격화가 예상되므로 중국과의 경제 및 산업 협력을 강화해 국내 기업들의 對中 진출 확대를 모색해야함
- 이를 위해서는 해당 시장에 대한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우리 기업들의 현지 유통·물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지원 등을 통해 다각적인 마케팅 및 판로 확대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둘째,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신흥 시장의 발굴 및 진출에 주력해야 한다.

- 중국 이외의 신흥공업국에 대한 수출 활로 개척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최근 유가 상승으로 다시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중동, 중앙아시아 등 산유국에 대해 적극적인 시장 진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선진국 시장에 대해서는 수출기업들이 기 발효된 한-EU FTA와 올해 중 발효되는 한-미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의 정보 공유 및 공조가 체계화되어야 할 것임

셋째,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도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대한 컨틴전시 프로그램의 구축 및 실행 능력 점검 노력이 필요함 **HRI**

주 원 수석연구위원 (juwon@hri.co.kr, 2072-6235)

조규림 연구원 (jogyurim@hri.co.kr, 2072-6240)